OECD 개황과 농업위원회 의제목록*

송 주 호

1. 서론

OECD의 개황과 농업위원회 2000~2010년의 회기별 의제목록을 살펴보았다.

OECD 농업위원회에서는 회원국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2년마다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농정현안과 관련된 각 회원국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미래 농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에 농업위원회와 산하 3개의 작업반 회의에서는 식량안보, 위험관리, 가격불안정성, 식품체인 분석 , 비관세조치, 지역무역협정, 물 관리, 기후변화 등 현안 문제들이 핵심적인 의제로 논의되었다. 또한 지난 1998년 개최된 이래 12년만에 열린 농업각료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식품정책의 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각국의 농업정책 개혁의 바탕이 되며, 다자무역협상에서도 협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모든 회원국들이 국내 농업정책과 OECD의 논의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국내 농업계에서도 OECD에서의 논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와 OECD에서의 논의 내용을 의제별 및 주제별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므로 그 전에 이번 호에서는 OECD의 개황과 농업위원회의

---

* 본 내용은 "OECD 농업분야 논의동향분석 및 대응전략수립(2010)"를 토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연구위원이 발췌·요약하였다. (jhsong@krei.re.kr, 02-3299-4187)

2000~2010년도 회기별 의제목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OECD 개황

OECD 개요

1) 연혁

1948년 유럽경제부흥을 위한 미국의 경제원조정책인 “마샬플랜”을 집행하기 위한 기구(Organization of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로 탄생하여, 1961년 경제협력체로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20개 국가가 참여하였는데 1994년 이후 구사회주의 국가,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회원국, 아시아권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회원국 확대를 위해 1997년 비회원국협력위원회(CCN) 및 1998년 비회원국협력센타(CCNM)를 설치하였다. 2010년 12월 현재 회원국은 총 34개로 한국은 1996년 12월에 29번째로 가입하였다.

1948년 유럽경제부흥을 위한 미국의 경제원조정책인 “마샬플랜”을 집행하기 위한 기구로 탄생하여 1961년에 경제협력체로 확대되었다.

표 1 OECD 회원국 확대 추이

연도	회원국
1961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1962년	이탈리아
1964년	일본
1969년	핀란드
1971년	오스트레일리아
1973년	뉴질랜드
1994년	멕시코
1995년	체코
1996년	헝가리, 폴란드, 한국
2000년	슬로바키아
2010년	칠레, 슬로베니아,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주: 러시아도 가입을 신청하여 현재 가입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조만간 완료될 전망.

OECD에는 정책부문별로 전문위원회(총23개)가 있으며,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의 과제를 수행하는 약 200여 개의 작업반(Working Party/Group/Programme)이 운영되며, 이들은 담당부문의 세계동향 및 회원국 동향 분석, 사업추진 현황 검토 및 주요 주제에 관한 정책 대화 실시 등을 수행하고 있다.

무역확대와 시장기능 활성화에 의한 세계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협의체로 결정사항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준수된다.

2) 특징

OECD는 무역 확대와 시장기능 활성화에 의한 세계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협의체로서 결정사항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준수되

며, 각국의 주요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무역이슈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WTO협상 과정에 반영된다.

회원국 정책담당자들 간의 정책 대화에 의한 정책 협의, 학문적·실증적·전문적 분석에 의한 결론을 도출하며, 동료 압력에 의한 정책개선을 유도한다. 의사결정방식은 전체 회원국의 합의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최종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로써 개별회원국 의사에 반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

3) 조직 구성

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 당 1명과 EC대표가 참석하며, 위원회, 작업반 전문가 그룹회의 등 약 200개가 운용 중이며 연간 4만 명 정도의 정부관료들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사회(Council)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 당 1명과 EC 대표가 참석한다. 대표부 대사급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1년에 한번 각료급 회의가 개최되어 주요 문제들을 논의하고 위임사항을 결정하여 OECD 사무국에 전달한다.

위원회(Committee)는 경제, 무역, 과학, 고용, 교육, 금융시장 등 특정 정책 분야에 관한 의제를 논의하는 조직으로 회원국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위원회, 작업반(Working Group), 전문가 그룹회의 등 약 200개가 운용 중이며, 연간 4만 명 정도의 정부 관료들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OLIS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논의와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OECD 사무국(Secretariat)은 프랑스 파리에 있으며, 총 2,000명 정도의 직원(이 가운데 경제, 과학, 법률 등 전문가는 700명 정도)이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사무국 산하에는 센터(Center)(조세정책·행정, 경영·SME·지역개발, 개발, 유럽교통장관회의·교통연구), 사무국(Directorate)(개발협력, 교육, 고용·노동·사회 문제, 환경, 금융·기업 문제, 무역·농업, 공공관리·지형개발, 과학·기술·산업, 통계), 경제부(Department)와, 성(gender), 국제선물제도, 국제에너지청, 법률, OECD 포럼(Forum), 핵에너지청, 개발 정책연대, 사헬(Sahel)·서부아프리카 클럽 등이 구성되어 있다.

농업위원회

1) 농업위원회 구성

농업위원회는 회원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검토, 농산물 수급정만 및 대처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농업위원회는 회원국의 농업 및 식량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국 농업정책에 대한 검토·농산물 수급전망 및 대처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농업위원회는 1961년 창설된 초기 OECD 위원회 중 하나로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APM) 이라는 하나의 하부기관을 가지고 있다. APM은 관련사항을 농업위원회에 직접 보고한다.

매년 2~3회 회의가 개최되며, 주로 각 회원국 농업부의 국·과장들이 회의에 참석한다. 농업위원회에는 OECD 전 회원국이 참여하며,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옵서버(observer)로 참여하고 있다. 비회원국으로서 농업위원회 활동참가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 국가이다.

2) **농업위원회 조직**

농업위원회는 산하에 농업정책 및 시장(APM:Agricultural Policy and Market)작업반을 두고 있으며, 또한 두 개의 합동작업반(Joint Working Party: JWP)의 모체이기도 한데 농업-무역합동작업반은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와, 그리고 농업-환경합동작업반은 환경정책위원회(Environmental Policy Committee: EPOC)와도 연계되어 있다.

농업-무역합동작업반은 1962년에 설립되어 농산물 시장 및 무역정책 모니터링, 농산물 무역 장애요인을 검토한다. 농업-환경정책합동작업반은 1993년에 설립되어 농업과 환경간의 상호관계 분석, 농업환경지표 개발,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농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은 1987년에 설립되어 농업정책의 점검평가, 농업정책 목적달성수단 및 분석기법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APM 회의는 농업정책 및 농업시장 이슈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발간 여부를 결정하는 OECD 농업위원회의 핵심 산하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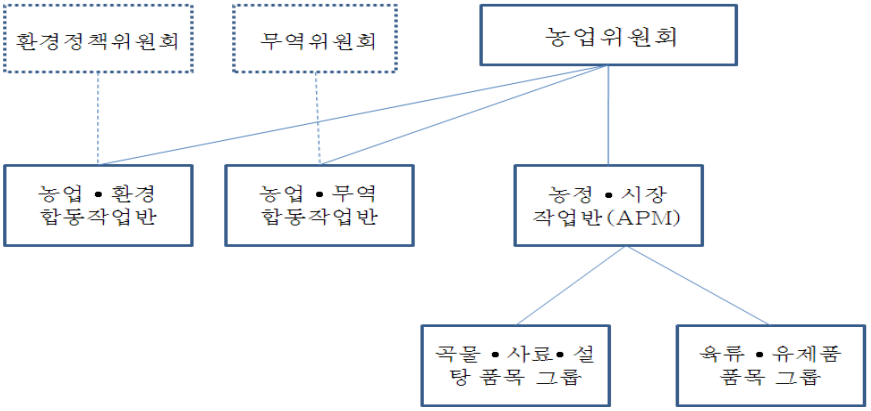
농업위원회 산하의 곡물・사료・설탕 품목그룹(Group on Cereals, Animal Feeds and Sugar)은 1980년에 창설되어 물, 사료, 설탕에 대한 중・단기 수급전망 및 관련 정책에 대해 분석·토의한다. 육류・유제품 품목그룹(Group on Meat and Dairy Products)은 1987년에 창설되어 중・단기 수급전망 및 관련 정책에 대해 분석·토의한다. 이들 품목 그룹은 2008년 11월 제 151차 농업위원회에서 "품목시장그룹(Group on Commodity Market)"으로 통합하기로 결정되었다.

농업위원회 사무국은 2006년에 무역국(Directorate for Trade)과 식량농업수산국(Directorate for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을 통합한 무역농업국(Trade and Agriculture Directorate: TAD)에 설치되었다. 무역농업국 산하에는 농업 관련 4개과(농업정책·무역 및 조정, 농업정책 및 환경, 무역 및 시장, 비회원국 농업정책), 농업기술관련 협력연구프로그램, 수산과에 총 6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위원회는 1962년 OECD 최초의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총 11번의 농업각료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1998년에 이어 12년만인 2010년에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농업위원회 회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4명으로 구성되며 해마다 선출된다.

농업위원회는 산하에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농업정책 및 농업시장 이슈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발간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1 농업위원회 조직 구성



3) **농업위원회의 성격**

농업위원회는 농업정책, 농업무역, 농업환경 등 산하작업반 활동에 대한 기본적 결정을 내리는 상위기구로서, 연2회 회의를 통해 OECD 농업분야의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또한 회원국의 농업 및 식량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검토와 농산물 수급전망 및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원활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며, 다자간 무역 체계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을 통합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3. 농업위원회 의제목록(2000~2010)

OECD농업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추세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지난 10년간의 회기별 의제목록을 살펴본다.

표 2. OECD 농업위원회 의제목록(2000 ~ 2010)

	주요의제
131차 농업위원회 (2000.4.17~19)	○ 2001-2002 작업 프로그램 초안검토 ○ 연례보고: 2000 M&E ○ 환경지표 -현황파악 보고서 ○ 다원적 기능 -진도 보고서 ○ 농업/무역 합동작업반의 새 임무 ○ 농산물 무역 자유화 -신흥 · 전환 경제권 관점

	○ 농업지식 시스템 –요약보고와 진행사항 ○ 생명공학과 식품안전
132차 농업위원회 (2000.11.28~29)	○ 2001 프로그램 이행 ○ 농업과 환경이슈 ⅰ) 지속가능발전의 수평 프로그램 분석 ⅱ) 환경전망 : 진도보고 ⅲ) 농업 · 환경작업반의 임무 갱신 ○ 정책 평가 모형(PEM) ○ 보고서 공개 ○ 신흥 · 전환기 경제권의 무역정책 관심사 ○ 코드와 계획(Codes and Schemes)
133차 농업위원회 (2001.4.25~27)	○ 2001–2002 사업계획 –식품안전을 위한 수평작업 제안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추가 수평작업 –2002 사업 조정 및 재배정 구조 ○ 연례보고: –2001 M&E –향후 M&E의 우선 정책 이슈 ○ 고위급회의 준비 –고위급회의의 범위, 접근 방법
134차 농업위원회 (2001.11.21)	○ 2002사업프로그램 집행 ○ 고위급회담의 결과를 2003–2004 작업프로그램에 반영할 의미 ○ TRQ와 관세: 미래분석 ○ 루마니아와 슬로베니아의 옵저버 참여 요청 ○ 지속가능개발 활동의 업데이트
135차 농업위원회 (2002.4.22~24)	○ 2003–2004 작업 프로그램 초안검토 ○ 2002 M&E의 주요 정책이슈
136차 농업위원회 (2002.11.21~22)	○ 2003–2004 작업 프로그램 초안 변경의 의미 ○ 공동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접근 개발 ○ 수평프로그램 –식품안전 –지속개발 –DDA 지원 ○ 농업위 활동에 관한 정부, 일반, 시민단체 등과의 대화 ○ 지속가능농업체계를 위한 생물자원관리에 관한 프로그램 업데이트
137차 농업위원회 (2003.5.21~23)	○ 2003–2008 전망 ○ 2003 M&E에서 나타난 중요 정책 이슈 ○ 정책서신 2호– 다원적 기능 ○ 농정개혁을 위한 WTO모델리티의 의미 ○ 식품경제의 변화에 관한 컨퍼런스 결과 ○ 농업위 작업에 참여할 비회원국 선정기준 –이사회결정의 적용가이드라인 제안 –카자흐스탄의 옵저버 참여 요청 ○정책 응집에 관한 수평적 작업의 업데이트
138차 농업위원회 (2003.12.8~9)	○ 향후 프로그램 이슈 –칸쿤 각료회의의 의미 –M&E와 전망보고서의 년례 발간 계획 –수평적 작업의 업데이트 ○ 프로그램의 관리 이슈 –문서 공개, 발간, 소통 –OECD 모형의 외부 이용 ○ 다원적기능, 디커플링, 농가소득에 관한 작업에서 얻은 결론의 무역정책에 대한 의미 ○ 라트비아의 농업위 작업에서의 옵저버 참여요청

	○ 농업/환경정책 –농업과 환경에 관한 OECD 작업의 교훈 –농업과 환경작업반 임무의 갱신
139차 농업위원회 (2004.4.26~28)	○ 2005-6 작업과 예산계획 ○ 농업위의 범OECD차원의 활동에 대한 가능한 기여 ○ 업데이트 –개도국의 농정검토에 관한 2005고위/장관급 회담 제안 –수평적 작업 –태국의 옵저버 참여 요청 ○ 지속가능농업체계를 위한 생물자원관리에 관한 프로그램 2005-9의 갱신
140차 농업위원회 (2004.12.1~2)	○ 2005-6 회의일자 ○ 농촌개발 : 정리 ○ 개도국의 농정검토에 관한 2005고위급 회담 준비 ○ 정책서신3호-농업/환경정책 ○ 농업 외부활동: 장기프로그램의 수립 대안 ○ 옵저버 초청에 관한 절차 ○ 수평적 프로그램: 개발이슈를 위한 정책 응집
141차, 142차 농업위원회 (2005.6.9~10,13)	○ 브라질의 농정 검토(141차, 142차) ○ 중국의 농정검토(141차, 142차) ○ 인도의 농정 검토(142차)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정 검토(142차)
143, 144차 농업위원회 (2005.12.5~6)	○ 예산작업계획의 평가 –2004프로그램이행보고의 결과 –중기진로조사 업데이트 –2008농업위 임무 갱신 준비 ○ 2007-8 예산계획의 진로 ○ 농업위와 시민사회조직과의 협의 ○ APM과 농업/무역작업반 의장의 보고 ○ 아프리카농업지원(SAAP)프로그램 업데이트 ○ OECD 계량분석 도구 검토 ○ 외부활동전략 초안 –현행옵저버(2년)의 갱신 –태국의 옵저버 초대 –옵저버후보에 대한 고려 ○ 농업 외부활동 장기계획 수립 제안 ○ 인도의 농정 검토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정 검토(143차)
145차 농업위원회 (2006.5.17~19)	○ 2006 OECD농정 ○ 2007-8 사업계획 초안 ○ 농업글로벌포럼의장과 농업/환경작업반 의장의 보고 ○ 정책서신4호-디커플링
146차 농업위원회 (2006.11.16~17)	○ 2007/8 농업위 계획 –2007-8사업계획 –2007-8외부관계접근 –위원회 평가 –위원회 산출물에 대한 회원국본국의 활용 ○ part2 프로그램 업데이트 ○ 농업개발과 빈곤경감에 관해 DAC /POVNET 와의 공동 회의 ○ 디커플링과 그이후에 관한 정책포럼 ○ 농업과 환경 작업반 임무 중간 검토 ○ 지역별 이벤트 업데이트
147차 농업위원회 (2007.5.29~30)	○ 농업위 평가 ○ 2007-8 사업계획 이행 계획 ○ 농업위원회를 위한 전략적 방향 ○ APM 과 농업/무역 작업반 의장의 보고

	○ 바이오에너지에 관한 정책포럼 ○ 코드와 스킴: 과일과 채소 스킴의 전환 제안 ○ 세르비아의 옵저버 자격 요청
148차, 149차 농업위원회 (2007.11.27,28~30)	○ 2005-6 사업 이행 보고 결과 ○ 2009-10 예산사업계획의 진로 ○ part Ⅱ 프로그램 업데이트 ○ 아프리카 농업개발 지원 ○ 칠레 농정 검토(148차) ○ 임무의 갱신 -2009-13 농업위 임무의 갱신 -농업과 무역 작업반 임무 초안(2009-13) -APM 임무초안(2009-13) ○ 농업과 환경 의장, 농업에 관한 글로벌 포럼의장 보고 ○ OECD 가입과 참여보강과정의 업데이트 ○ 옵저버 자격 -현재 옵저버 초청의 갱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옵저버 절차
150차 농업위원회 (2008.5.13~15)	○ 2009-10 예산작업 초안 ○ 농업위 임무 초안(2009-13) ○ 바이오연료지원정책의 경제적 평가 보고 초안 ○ 농업위 심층평가 진도보고 ○ 농업과 식료산업에 대한 세계적 도전에 관한 기념 심포지움 ○ 농업과 환경작업반 임무 초안 : 농업의 환경수준- OECD 농업환경지표 사용 ○ 2008 개발 관련 작업 진도보고 ○ 농업에 관한 글로벌 포럼 유치 제안 ○ 가입과 참여보강 전략 업데이트 ○ 옵저버 제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옵저버 상태 -특별 옵저버 초청
151차 농업위원회 (2008.11.18~19)	○ part Ⅱ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코드와 스킴, 생물 자원관리 ○ 2009-10 회의 일정 ○ 각료회담 준비 ○ 농업위 심층평가의 권고 후속조치 ○ 농업위 하부조직의 검토 ○ "세계화추세에서의 농업과 식품분야의 미래"심포지움 준비 업데이트 ○ 정책포럼: 기후변화와 농업의 연계 ○ 개발 관련 작업 진도보고 -APDI 설계제안 -지속개발과 빈곤경감을 위한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 ○ 농업/환경작업반의장과 농업에 관한 글로벌 포럼 의장의 보고 ○ 가입과 참여보강 전략 업데이트
152차 농업위원회 (2009.4.1~2)	○ 2009/10 예산작업 이행 ○ 각료회담 준비 - "세계화추세에서의 농업과 식품분야의 미래"심포지움 -2010 각료회의 준비 ○ 농업위 심층평가 후속조치 ○ 세계식량과 농산물시장, 농업부분을 위한 재정적, 경제적 상황, 의미-계획된 반응 ○ 신흥경제권의 농업발전의 감독 ○ 협동연구프로그램의 임무 ○ 농업부문 최적위험관리정책 ○ 농식품분야에 적용되는 비관세장벽 ○ 향후 정책 포럼과 정책서신에 대한 제안 ○ 가입국 업데이트 ○ 무역이슈에 대한 의견교환

153차 농업위원회 (2009.11.24~26)	○ 이스라엘 농정 검토 ○ 칠레 농정 검토 ○ 농업과 농촌개발에 관한 정책 포럼 ○ 2010 각료회의 준비 ○ 2011-2012 사업계획 오리엔테이션 ○ OECD 녹생성장전략 업데이트 ○ 농업위 심층평가 업데이트 ○ 커뮤니케이션 활동 -Delegate's Corner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Web 2.0 소개와 업데이트 ○ 농업위 부속기구의 보고 -농업에 관한 글로벌 포럼 의장 보고 -2010 농업에 관한 글로벌 포럼의 계획 -농업과 환경 전문가회의 의장 보고 ○ part Ⅱ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 - 협동연구프로그램, 코드와 스킴 ○ 옵저버 자격 -2010-2011 옵저버 갱신 -루마니아의 참여 요청 -2010 농업위 옵저버 초청
154차 농업위원회 (2010.6.1~2)	○ 2011-2012년 사업과 예산 계획: Part Ⅰ 계획 ○ 사업과 예산 계획 Part Ⅱ: 코드와 스킴 ○ 사업과 예산 계획 Part Ⅱ: 협동연구프로그램 ○ 커뮤니케이션 활동 ○ 농업에 관한 글로벌 포럼 계획 ○ 2010-2019 농업전망 및 미래의 쟁점들 ○ 작업반 활동 보고 ○ 제68차 OECD 과실·채소류 스킴 총회 종합 보고서 부록
155차 농업위원회 (2010.12.1~2)	○ 세계식량안보 정책포럼 ○ 위원회 수평적 협력사업 경과보고 ○ 2011-2012 사업예산계획 보고 ○ 프랑스의 G20 의장국 수임관련: 정보제공 ○ 농업위원회 대외관계 강화 전략: 비공개로 진행됨 ○ 2011년 농업위원회와 부속작업반의 옵저버 특별 초정 ○ 농업위원회와 산하작업반간의 업무분장 조정안 토론 ○ 2011년 회의 계획 -상품시장그룹 -농업환경공동작업반 ○ Reports from subsidiary bodies -Codes and schemes ○ 협동연구 프로그램 ○ OECD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논의 ○ 농업지식정보시스템(AKS) 회의

4. 시사점

최근의 OECD 논의는 점차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인 식품산업, 농촌개발, 위험관리 연구, 비관세조치 등의 내용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OECD의 주요 활동은 각국이 세계경제의 일원으로서 다른 나라와 공존하며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도록 각종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

지만 수도작 위주의 작부체계를 갖고 있으며 소농 위주의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미국, EU,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정책과 같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OECD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충분히 알리고 함께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OECD에서의 논의가 단지 논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농정 개혁이 실질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으로 쓰이도록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 우리나라는 OECD에서 권장하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 형태, 목표지향적인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전환이 필요하다.

OECD에서의 논의가 단지 논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농정 개혁이 실질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으로 쓰이도록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ECD 농업분야 논의동향분석 및 대응전략수립 (2010)